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건의서 제출 무허가 계사 과태료 과중되게 책정되어있어

본회를 위시한 양돈협회(회장 전동용) 낙농비육협회(회장 황영구) 등 3개 축산인 생산자단체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양성화 해 재산권을 보호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태료가 축사신축비와 맞먹는 높은 비율로 책정되어 있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영세한 축산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되어 정책적인 차원에서 현행 가중치를 인하조정해 줄 것을 국회 농수산분과, 건설분과 및 건설부에 건의하였다.

한편 3개 생산자단체의 실무책임자들은 2월 9일 오전 건설부를 방문해 건의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건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의사회 구현과 농어촌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주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생산자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오며, 더욱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여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하오나 현행법에 따르면 과태료가 축사신축비와 맞먹는 높은 비율로 책정되어 있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영세한 축산인들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물론이고 신고기간인 3월 31일이 지난 후 무허가 건물을 정리하거나 벌칙규정에 의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경우 대부분의 영세양축가는 생업을 계속 영위할 수도 없

게되는 어려운 실정으로 축산물 수급에 차질은 물론 축산업계의 안정기반이 흔들릴 처지에 있어 축산업계 일동이 숙의한 끝에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높은 차원에서 검토 시정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 현 황

1. 별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축산물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많은 육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2. 국내 양축가는 일부 기업 또는 전업축산을 제외하고는 영세하여(별표2 참조) 간이축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문 제 점

1. 전체 축산업자의 0.48%에 해당하는 1만4백7십5호만이 전업축산업자이며 99.52%에 해당하는 2백만 농가는 영세한 축산농가로(별표2 참조) 대부분 무허가 축사 또는 간이 축사를 사용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배려가 없으면 축산물의 수급차질은 물론이려니와 2백만 축산농가와 이들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까지의 생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500평 규모의 축사를 양성화 하려면 현행법내에서는 과태료가 평당 2만원 이상으로 천만원의 과태료가 있어야 됨으로 영세 축산농가로는 축사건축비 보다도 더 비싼 과태료를 지불하고 양성화할 능

력도 없으며 차입 등에 의하여 양성화한다 하여도 이는 건전한 축산발전의 저해는 물론 축산물의 원가상승요인만 되어 정부의 저물가정책에도 위배됩니다.

○대책건의

1. 축사의 경우는 국민식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산업이면서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증대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현행 가중치(과태료 산정 기준) 0.6를 0.06이하로 대폭인하 조정하여 주시고
2. 농촌 일반지역에서 허가사항이 아닌 60평 이하의 축사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은 전평 25평까지 과태료가 면제되고 있음)

〈과태료 산출근거〉

1. 과태료

구분	내역	가중치	비고
용벽구지	축사	0.60	
벽구지	세멘부력조	0.45	
지붕구지	스래이트	0.65	
규모	500평	0.75	
대상지역	경기 7 지역	0.70	
용도지역	기타 지역	0.20	

산출방법

$0.60 \times 0.45 \times 0.65 \times 0.75 \times 0.70 \times 0.20 \times 1,653\text{m}^2$ (500평) $\times 300,000\text{원} = 9,138,197\text{원}$ (평당 18,276원)

2. 설계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건축사의 업무보수기준 제 3조 제 1항 "나"호에 의거

$1,653\text{m}^2 \times 1,050\text{원} = 1,735,650\text{원}$ (평당 3,471원)

과태료+설계비

$18,276\text{원} + 3,471\text{원} = 21,747\text{원}$ (평당)

(표 1) 축산물 수요량

년도 축산물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최고기	27,261M/T	37,340	70,292	99,974		
돼지고기	55,881M/T	82,546	98,848	241,842		
닭고기	14,458M/T	45,177	55,594	90,866		
우유	10,474M/T	49,688	162,435	411,809		
계란	855,786천개	2,456,064	2,896,132	4,543,000		

(표 2) 축산농가중 기업축산의 비율

구분 축종	전체농가수	전업축산농가수		비고
		농가수	비율	
한우	895,912호	625호	0.06%	30두이상
유우	20,579	2,164	10.51	20두 "
육우	6,832	101	1.47	30두 "
양돈	479,925	2,485	0.51	100두 "
양계	737,571	5,100	0.69	3,000수 "
계	2,140,819	10,475	0.48	2,130,344 (영세농가)

(1982. 6. 30농수산부통계)

(표 3) 가축사육현황 (농수산부 통계)

년도별 가축별	79. 12. 31	80. 12. 31	81. 12. 31	82. 6. 30
소	1,762,079	1,603,635	1,505,930	1,663,927
돼지	2,843,163	1,761,124	1,831,518	2,384,595
닭	41,120,522	39,231,861	42,999,172	51,608,929

'83 양계인 신년인사회

- 1월11일, 코리아나호텔에서 -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는 계해년을 맞이하여 지난 1월 11일 코리아나호텔에서 83년 양계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상윤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사업정보도 교환하며 업계의 인화단결을 이룩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또한 본협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역대회장, 현 자문위원, 임원 그리고 농수산부 관계관에게 감사의 뜻을 표



△ 83년 양계인 신년인사회

하고 앞으로 이 인사회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오봉국교수의 축사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그동안 협회발전을 위해 심신을 쏟아주신 분들을 본회 고문으로 추대하여 이날 인사회를 통해 고문 추대장을 증정했으며, 시종 화기에 찬 분위기 속에서 성료되었다.

부산지부 분과위원회 개최 - 27일, 28일 상호관심사 논의 -

본회 부산경남지부(지부장 김종경)는 지난 1월 27일 육계분과위원회 28일 채란분과위원회를 각각 지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육계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하영석)에서는 관내 육계분과위원 25명이 참석해 부위원장에 이환생(양산계우회), 홍성태(서부계우회)씨를 각각 선출하고 관내 생산출하현황과 사료생산 관측, 종계입식현황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지역의 육계 유통상인 모임인 생계조합과 육계가격조절을 위해 상인과 생산자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을 결의하고 가격조절협의회(가칭)를 구성키로 합의한 생산자측 위원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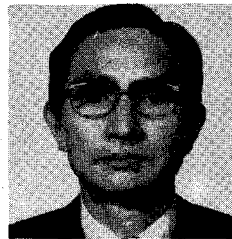
한편 집행부 직원의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

해 기동성을 갖는데 의견을 모으고 업무추진용 차량구입을 지부 이사회에 부의키로 결의했다.

한편 20여명이 모인 채란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우원현)에서는 지역 채란가격의 협의기구인 난가협의회 결의사항을 발표하고 더욱 효율적인 난가협의회 운영을 위해 생산자측 위원을 새로이 선정하고 상인의 모임인 난우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서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상키로 하였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경남일원의 질병문제, 전국권과의 협조문제 사료값 인상,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전남지부 정기총회 개최 - 1월 13일, 카톨릭 센터에서 -



〈김용찬 지부장〉

본회 전남지부(지부장 김용찬)는 82년도 정기총회를 지난 1월 13일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톨릭센터 대강당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82년도 사업실적보고, 예산집행결산심의 의결 및 83년도 사업계획(안), 수지예산(안) 심의가 있었으며 이어 지부 발전에 헌신적으로 협조해 준 관련업체 대표 광주축협 김기수조합장, 바이엘화학 전남출장소 김석순 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한 임원개선에 있어서 김용찬 지부장, 안명수 상무, 김태환 채란분과위원장의 위임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북지부 정기총회 개최
- 양계인의 권익보호, 양계발전 다짐 -



〈박인수 지부장〉

본회 전북지부(지부장 박인수) 82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1월 11일 전주시 서노송동 소재 중앙신용협동조합 3층 회의실에서 내빈과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에 이어 감사보고, 82년도 사업보고심의 및 수지에산 결산서 심의, 임원보선, 83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에산(안)심의, 기타사항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박인수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82년 한해는 지난 봄부터 우리 양계업계를 강타한 I LT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회원들의 노력과 협력으로 보다 나은 83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개선점 등을 과감히 시정해 전북지역 양계인의 권익보호와 양계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역설했다.

제 7 회 축산물 생산자 단체협의회 개최
- 1월 11일, 낙농비육협회 회의실에서 -

제 7 회 축산물생산자단체협의회가 지난 1월 11일 오전 11시 한국낙농비육협회 회의실에서 4개 생산자단체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지부(지회)설치, 축산회관 운영에 관한 토의가 있었으며 특히 본협회 황인옥전무는 이날 협의회를 통해 생산자단체 주요행사의 적극적인 상호협조와 축산회관내 커피 자동판매기 설치 및 국내 양축가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남에 따른 외무부 여권과에 농수산물 산하단체등록 건의등을 제의, 토론했으며 또한 생산자 단체간의 공동관심사 협의안건 추진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내용 검토가 있었다.

부산·경남지부 전화번호 변경

본회 부산·경남지부(지부장 김종경)의 전화가 1월 28일자로 증설되었다.

증설전화번호: 부산(552) - 6403

제 1 차 이사회 개최

83년도 제 1 차 이사회가 오는 2월 17일 오후 2시에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아울러 오전 10시에 회장단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 비위생적인 난좌유통 추방해 질병전파 방지하자
- '나'를 생각하기 앞서 '우리'를 생각하는 양계인
- 적정생산, 적정출하로 발전하는 양계산업

- 대한양계협회 정화추진위원회 -